

AI(artificial intelligence) 시대 속 한국 문학, ‘창조’하는 작가에서 ‘배치’하는 작가로의 이행*

김 소 루**

요 약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 예술 영역에서 다양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달은 매체의 변화는 물론, 이야기를 구현하고 소비하는 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본 논문은 새롭게 부각되는 ‘미디어’ 매체와 전통 양식인 ‘소설’의 결합이 갖는 의미를 고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000년대 발표된 소설들의 내용적·형식적 측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0년대 작가들의 창작 방식이 인공지능의 알고리즘과 매우 흡사한 형태로 구성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어진 데이터를 토대로 새로운 발견을 이루어내는 인공지능처럼, 2000년대 작가들은 기존의 지식들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 나열되는 수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작가들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 폭발적으로 정보를 흡수하고, 독자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이야기를 증식해 나가고 있다. 그 가운데 저자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다면적이고 참여적인 형태의 서사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스마트폰’과 ‘소설’의 결합을 시도하는 ‘초단편’소설이라는 새로운 변환의 문학 장르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AI’ 시대라고 명명되는 오늘날에 있어 ‘과연 소설이란 무엇인가?’라는 고전적 가치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주제어: 인공지능(AI),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2000년대 한국 소설, 조

* 본 논문은 교육부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의 게재료 지원을 받았다.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목차

1. 들어가며: 인공지능 글쓰기 시대와 작가의 '위치'
2. 수집하고 배치하는 작가들: 조합형 소설의 등장
3. 미디어와 결합하는 작가들: 초단편 소설의 등장
4. 나가며: 2000년대 한국 문학과 작가의 '가치'

1. 들어가며: 인공지능 글쓰기 시대와 작가의 '위치'

1984년도 이후 2015년도까지 꾸준히 시리즈가 제작된 SF영화 <터미네이터(Terminator)>의 주된 서사는 인간을 지배하는 인공지능 로봇과 그에 대항하는 인간 사이의 전쟁으로 요약된다. 로봇은 더 이상 인간의 명령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을 결정 짓는다. 이러한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상상은 더 이상 영화 속에 한정되지 않는다. 실제 무기를 든 전쟁은 아니었지만, 지난 해 화제가 되었던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 역시 인간과 인공지능 컴퓨터와의 대결이었다는 점에서 상상은 이미 현실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오늘날의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¹⁾ 이는 인공지능 로봇이 더이상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대체할 수단이 아니라,

1) 미국 시장분석 기관 트랙티카(Tractica)는 지난 해 6억 4000만 달러 수준이었던 전세계 인공지능 시장의 매출 규모가 2025년에는 368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며, IDC도 전세계 인지·인공지능 시스템 시장이 연평균 55.1%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강경수, 『글로벌 기업은 왜 인공지능에 열광하나 인공지능 시장을 잡는 자, 미래 세상을 지배한다』, 『문화: 기술-문화와 기술의 만남』 통권 53호,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7. 42면.

인간만의 고유 영역으로 인식되어온 다양한 예술 창작 분야로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²⁾ 이제 인공지능 컴퓨터는 음악 데이터를 통해 음악 규칙과 조합을 학습하여 스스로 새로운 교향곡을 작곡한다. 19만 개 단어의 어휘력을 바탕으로 1분 만에 한 편의 시를 쓰고, 특정 화가의 화풍을 분석해 새로운 그림을 그리며, 신문 기사 작성은 물론 영화 시나리오를 창작하기까지 이르렀다. 그야말로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인공지능'의 실현여부가 아니라, '인공지능'의 영역이 과연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인가로 모아진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문학상 예심을 통과하였다. '키마구레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쓴 단편소설 『컴퓨터가 소설을 쓴 날』이 '호시 신이치' 문학상 공모전에서 1차 예선을 통과한 것이다. 인간만의 고유 영역으로 간주되어온 '창작' 분야에까지 인공지능 기술이 침투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다. 물론 당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연구진들은 해당 소설이 100% 인공지능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인간이 구체적인 스토리와 상황을 정하고, 그 이후에 인공지능이 나머지 공백을 메우는 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비중이 실제 작품 창작에서 무려 80%나 차지한 것이다.³⁾ 그렇다면 『컴퓨터가 소설을 쓴 날』의 작가를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

2) "한국고용정보원이 2016년 3월 발표한 'AI와 로봇이 직업세계에 미칠 영향' 자료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AI와 로봇으로 대체될 확률이 높은 직업 1위로 콘크리트공을 꼽았다. 2위는 정육점 및 도축원, 3위는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조립원, 4위는 청원경찰이었다. 반면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하기 어려운 직업으로 화가가 1위, 사직작가가 2위, 작가가 3위, 작곡가가 4위에 올랐다." - 강진규,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 권리는 어디까지?』, 『문화: 기술-문화와 기술의 만남』 통권 51호,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4. 13면.

3) 김윤형, "인공지능 소설 절반의 성공", 『한겨레』, 2016.03.22.,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736180.html, 2017.10.09.

한 질문이 제기된다. 인간의 도움을 받은 인공지능의 작품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인공지능을 통해 이루어진 인간의 작품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말이다. 이처럼 인공지능을 통한 소설 창작은 오늘날 ‘작가’의 의미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던지기에 충분한 화제성을 지닌다.

비슷한 맥락에서 2013년에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스토리헬퍼’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스토리헬퍼’란 국내 최초의 디지털스토리텔링 지원도구로, 해당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는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다.⁴⁾ 프로그램의 논리는 간단하다. 사용자는 약 1,500편의 영화 분석을 통해 제공된 205개의 모티프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창작할 수 있다. 프로그램 개발 측에서는 ‘스토리헬퍼’가 창작활동의 저변을 확대함은 물론, 이야기 구성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한다.⁵⁾ 실제로 해당 홈페이지의 주 가입자는 작가 지망생과 창작을 공부하는 학생들로 집계되며, 창작 스토리 콘텐츠 기획자와 전업 작가들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스토리헬퍼’의 후속작으로 인공지능 기능이 담긴 ‘스토리타블로’가 개발되었는데, 이는 이미지 기반의 사용자 참여형 시나리오 저작도구에 해당한다. 스토리를 웹상에 공유하고 피드백을 통한 수정을 거침으로써, ‘협업’을 통한 창작 활동을 지향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무엇보다

4) ‘스토리헬퍼’는 엔씨소프트 문화재단과 이화여대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국내 최초 디지털스토리텔링 지원 도구이다. 소설,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 콘텐츠 제작에 필수적인 아이디어 도출과 스토리 완성을 도와주는 국내 최초 한국형 스토리텔링 저작지원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다. 2만 4천종의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검토하여 대표작 1500편을 선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3만 4천개 요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으며, 이는 다시 205개의 이야기 모티프와 각각 36개의 에피소드로 정리되었다. - 『스토리헬퍼 2015 이용가이드 StoryHelper 2015 User Guide VERSION 1.0』, “STORY HELPER” 홈페이지, <http://www.storyhelper.co.kr/>, 2017.09.18.

5) 원태영, “스토리헬퍼 후속 스토리타블로 선배”, 『시사저널e』, 2016.11.,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60136>, 2017.10.13.

참여 기여도에 따라 권한 및 보상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 창작'의 장(場)을 여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기술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과연 '작가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과 마주하게 한다. 인공지능을 작가라고 명명할 수 있는가, '스토리헬퍼' 류의 글쓰기를 하는 이들을 작가라고 명명할 수 있는가, 한 편의 작품은 오직 한 사람의 작가에 의해서 완성되어야 하는가 등의 질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작가란 무엇인가'라는 고전적인 정의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본 논문의 출발점은 이와 같은 일련의 질문들로부터 비롯된다.

이에 관한 해답을 찾고자 2000년대 발표된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전 시대와 차별화된 그들만의 글쓰기를 탐색하였다. 과거 제한된 공간 속에서 구전되던 이야기들은 인쇄매체의 발달을 통해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 가운데 이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별 이야기들이 모여 하나의 전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trans-media storytelling)'⁶⁾이라는 새로운 참여문화현상이 출현하였다. 동일한 허구적 세계를 3개 이상의 스토리 라인으로 구성한다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속성은 현대인들이 소비하는 새로운 이야기의 형태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처럼 변화하는 서사의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는 소설의 새로운 가치를 가늠할 필요성과 마주한다. "탈근대를 살아가면서 소

6) "트랜스미디어 스토리는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며, 각각의 새로운 텍스트가 전체 스토리에 분명하고도 가치 있는 기여를 한다. 이상적인 형태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서, 각각의 미디어는 자자 최선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하나의 스토리가 영화로 소개되고, 텔레비전, 소설, 그리고 만화로 확장된다. 그 이야기의 세계는 게임 플레이를 통해 탐험될 수도 있고, 놀이공원의 명소로써 경험될 수도 있다. 각 프랜차이즈로의 진입은 자기충족적이어야 한다. 영화를 보지 않고도 게임을 즐길 수 있어야 하며, 그 역도 마찬가지다. 어떤 상품이든지 전체 프랜차이즈로의 입구가 된다." - 헨리 젠킨스, 김정희원·김동신 옮김, 『컨버전스 컬처』, 비즈앤비즈, 2008, 149면.

설양식이 근대성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소설에 한 과도한 억압”일 수 있다는 지적처럼, 새로운 매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소설에 관한 새로운 조명을 시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⁷⁾ 이에 본 논문은 변화하는 매체의 변화와 소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그 가운데 출현한 한국 소설의 새로운 형식적 변화에 관한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2. 수집하고 배치하는 작가들: 조합형 소설의 등장

소설가는 자신이 살아온 경험과 지식을 조합하여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낸다. 그런 면에서 소설을 쓰는 일은 이전에 없던 ‘무(無)’로부터 새로운 ‘유(有)’를 창조하는 작업이라기 보단, 이미 존재하는 세계 내에서 또 하나의 세계를 완성해가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유(有)’에서 ‘유(有)’로의 새로운 조합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소설가의 역할은 주어진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조직하는 인공지능 글쓰기의 특징과 묘하게 겹쳐진다. 특히 2000년대 활동하는 작가들에게서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게 발견되는데, 그들은 주어진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처럼 객관적인 자료들을 나열함으로써 독특한 소설쓰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의 조국 상실, 해방 이후의 전쟁과 분단, 급속한 산업화와 독재에 대한 항거 등 본인이 직접 마주한 경험과 기억들을 소

7) “소설 연구 방법론을 고정된 틀로 두고 대상의 변화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상의 속성과 구조가 변했는데 방법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학문 진전에 파행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소설의 핵심어 혹은 소설 연구의 핵심어는 늘 재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 우한용, 『소설의 경계와 연구의 한계』, 『현대소설연구』 제34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3면.

설로 그려내던 기성세대 작가들의 창작 방식과 명확한 차별성을 갖는다.

우선 '도서관 소설' 혹은 '지식조합형 소설'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정지돈의 소설을 살펴볼 수 있다. 그의 소설이 갖는 특징은 다양한 예술사와 기존의 문학 작품들에 관한 방대한 지식들이 “허구와 경계 없이” 섞여있다는 점이다.⁸⁾ 그의 첫 단행본 『내가 싸우듯이』⁹⁾ 속에는 9편의 단편 소설 외에 자신의 작품에 영향을 준 참고문헌이 무려 아홉 페이지에 걸쳐 소개되고 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마치 전문 학술 서적을 연상시키듯이 고유명사들의 ‘찾아보기’도 수록되어 있다. 이밖에도 그의 소설 『눈먼 부엉이』는 사테크 헤다야트의 『눈먼 부엉이』를, 『미래의 책』은 모리스 블랑쇼의 『미래의 책』을, 『창백한 말』은 사빈코프의 『창백한 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작가는 기존의 텍스트를 그대로 작품 안으로 끌어들이며, “지식을 조합하지 않고 그냥 나열만 해도 소설이라고 하면 소설”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⁰⁾ ‘제6회 젊은작가상’의 대상으로 선정된 단편 『건축이나 혁명이나』 역시, 방대한 지식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의 정보들을 배치하는 방식의 글쓰기를 시도하고 있다. 아래 인용문은 작가가 조선의 마지막 황족인 실존 인물 ‘이구’의 삶을 조명하기 위해 작품 속에서 나열한 자료들의 목록이다.

8) 정서린, “디스토피아, 현실과 멀다고 느껴지나요”, 『서울신문』, 19면, 2017.08.05.,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805019002&wlog_tag3=naver, 2017.10.30.

9) 정지돈, 『내가 싸우듯이』, 문학과지성사, 2016.

10) 이미희, “작가 인터뷰: 정지돈 한마디로 괴물같은 신인”, 『BOOK DB』, 2015.05.26.,

http://news.bookdb.co.kr/bdb/Interview.do?_method=InterviewDetail&sc.mreviewNo=60507, 2017.11.09.

로베르트 볼라노, 『아메리카의 나치문학』, W.G.제발트, 『토성의 고리』 『공중전과 문학』, 알렉산더 클루게, 『이력서들』, 다닐로 키슈, 『죽은 자들의 백과전서』, 르 꼬르뷔지에, 『건축을 위하여』 『작은 집』, 지오 폰티, 『건축예찬』, 필립 그랑드리외, 『숨브르Sombre』, ckem 프리드리히 『프루이트 아이고 신화the Pruitt-igoe myth』, 건축신문 8호, 9호(정립건축), 박해천, 『콘크리트 유토피아』, 할 포스터, 『콤플렉스』, 렘 쿨하스, 『정신착란병의 뉴욕』, 문경원·전준호, 『미지에서 온 소식』, 박해천 외, 『휴먼스케일』, 폴 골드버그, 『건축은 왜 중요한가』, 위키피디아, 프루이트 아이고Pruitt-igoe, 터스키기 에어맨Tuskegee Aitman, 웬델 O. 프루이트Wendell O. Pruitt, 라스트 포에츠The Last Poets 항목, 천정환·권보드래, 『1960년을 묻다』, 김정동, 『이구와 그의 건축활동에 관한 소고』, 윤장섭 『황세손 이구 저하의 서거를 애도하며』, 정연심, 『고든 마타클락의 설치작업에 나타난 국제상황주의 정신』, 박수현, 『고든 마타클락의 작업에 나타난 도시개입 방식』, 구본준, 『마음을 품은 집』, (...중략...) 김서령, 『서울의 열개』 디자인한 최초의 도시 설계사 차일석 박사』, 정인하, 『시적 울림의 세계』, 현시원, 『사물의 재구성』(『루엘Luel』), 에드워드 파머 톱슨, 『윌리엄 모리스』. 11)

위의 인용문은 정지돈이 「건축이나 혁명이나」라는 하나의 단편을 창작하는 가운데 도움을 받은 소설, 산문, 시, 기사, 영화, 노래 가사 등의 목록이다. 실제로 소설은 ‘이구’라는 한 인물의 삶을 그려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한국의 근현대사와 세계 건축사에 관한 다양한 지식들이 나열되고 있다. 인공지능 컴퓨터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고유의 패턴과 기준, 판단 근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¹²⁾ 낸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지식을 배열함으로써 완성되는 정지돈의 소설 창

11) 정지돈, 『작가노트』, 『제6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2015)』, 문학동네, 2015.

12) 강동식, 『Intro 창작하는 인공지능, AI시대의 창작』, 『문화:기술-문화와 기술의 만남』 통권 51호,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04. 6면.

작 방식은 인공지능의 글쓰기와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지돈의 소설을 두고 “알파고의 알고리즘을 통해 알파고가 쓸 글을 미리 선점”하고 있다고 분석한 평론가의 말을 통해서도 접근된다.¹³⁾ 무엇보다 정지돈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은 세계와의 갈등을 직접 몸으로 경험했던 기성세대 작가들의 인물들과 변별된다. 그들은 이전 시대의 혁명을 엿보고, 수많은 책을 통해 삶을 경험한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소설과 영화들의 목록이 마치 “작가의 수집품처럼 전시”될 뿐이다.¹⁴⁾

이러한 특징은 김술의 첫 번째 소설집 『암스테르담 가라지세일 두 번째』¹⁵⁾에 실린 10편의 단편에서도 발견된다. 단편 『내기의 목적』과 『소설 작법』 속에는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 알프레드 알바레즈의 『자살의 연구』,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장정일의 『햄버거에 대한 명상』과 같은 실제 작품들이 주석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외에도 “밀란 쿤데라, 장자, 라이프니츠, 한나 아렌트, 니체, 에드거 앨런 포, 빅뱅이론, 모차르트, 카를로스 푸엔테스, 도슨, 진시황 전설, 수호지, 다종의 무협지, 네덜란드와 인도와 스페인의 풍속지, 인터넷 관련 정보들, 각종의 신화들…….”¹⁶⁾이 나열되고 있으며, 또 다른 단편 『피그말리온 살인 사건』 속에는 무려 107개의 단어 뜻을 설명한 주석들이 달려있다. 김형중은 이러한 김술의 소설 쓰기를 두

13) “이세돌 9단하고 알파고가 대전할 때, 인공지능이 문학작품을 쓸 수 있을까, 그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이 소설들은 알파고가 능히 쓸 소설 같기도 해서, 혹시 정지돈이 알파고가 아닐까 하는 상상도 했습니다. 알파고의 알고리즘을 통해 알파고가 쓸 글을 미리 선점해서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 김소연·박준·백지연, 『이 계절에 주목할 신간들』, 『창작과비평』 제44권 제3호, 2016.9. 432면.

14) 위의 글, 429면.

15) 김술, 『암스테르담 가라지세일 두 번째』, 문학과지성사, 2014.

16) 김형중, 『해설: 김술표 소설 공방』, 『암스테르담 가라지세일 두 번째』, 문학과지성사, 2014, 359-360면.

고 “일종의 ‘브리콜라주’(손재주)”라고 언급하였는데, 그의 소설이 한 정된 재료들을 이리저리 붙이고 덧대어 뭉개어 그럴듯한 것을 만들어 내는 일종의 ‘짜집기 공법’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¹⁷⁾ 또한 올해 발표된 그의 소설집 『망상, 어』¹⁸⁾에 수록된 작품들의 소재는 실제 작가의 경험이나 상상이라기보다는 인터넷 기사 혹은 신문의 사회 면에서 보도된 사건들의 재구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언젠간 한번 쯤 뉴스 기사를 통해 접했을법한 사건들의 나열, 이것 역시 2000년대 한국 문학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특징에 해당한다. 백가흠의 첫 단편집 『귀뚜라미가 온다』¹⁹⁾에는 실제 장애인 인권유린 사건을 소재로 삼은 것이라고 밝힌 『배꽃이 지고』 외에도 늙은 어머니를 구타하는 아들(『귀뚜라미가 온다』), 일가족을 살해하고 자살한 가장(『구두』)이 등장한다. 두 번째 소설집인 『조대리의 트렁크』²⁰⁾ 속에도 무관심 속에서 굶어죽은 어린아이와 갓난아기를 사고 파는 사람들(『웰컴, 마미!』), 자신을 거둬준 할아버지에게 강도행세를 해서 돈을 갈취해가는 청소년들(『매일 기다려』), 재산 때문에 어머니를 트렁크에 처박는 아들(『조대리의 트렁크』), 기러기 아빠(『로망의 법칙』), 군대 폭력의 희생자(『루시의 연인』)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알고 싶다>류의 프로그램에서 한번쯤은 본 직한 사건들이 즐비하다. 이를 두고 조연정²¹⁾은 백가흠의 소설이 철저히 ‘기록문학’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백가흠 소설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패륜’의 에피소드는 우리 사회에서 실제 존재하는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들이 작가가 직접 체험한 경

17) 위의 글.

18) 김술, 『망상, 어』, 문학동네, 2017.

19) 백가흠, 『귀뚜라미가 온다』, 문학동네, 2005.

20) 백가흠, 『조대리의 트렁크』, 창비, 2007.

21) 조연정, 『충분히 근본적인』 교란을 위하여 - 백가흠과 이기호의 소설, 『문학동네』, 2007년 봄호.

힘이 아니라, 인터넷 기사를 통해 접한 정보들의 나열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적 정보의 나열은 최근 '김지영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조남주의 소설 『82년생 김지영』²²⁾을 통해서도 접근된다. 작품 속에는 약 20개의 구체적인 통계 자료와 전문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해당 자료를 통해 소설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여성 차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가시화한다. 다음은 소설에 수록된 주석과 해당 페이지의 목록이다.

- * 박재현 외, 『확률 가족』(마티, 2015), 57~58쪽. (29면)
- * 『여성 혐오의 뿌리는?』 『시사인』 417호 참고. (29면)
- * 『출산 순위별 출생 성비』, 통계청. (29면)
- * 김시형 외 『기록되지 않은 노동』(삶창, 2016), 21~29쪽 참고. (30면)
- * 박재현 외, 앞의 책, 61쪽 참고. (35면)
- * 『여자라고 진교 회장 못하나요』, 『한겨레신문』, 1995.5.4. (47면)
- * 『인구 동태 건수 및 동태율 추이』, 통계청. (53면)
- * 여성가족부 누리집 (72면)
- * 『심상찮은 등록금 투쟁』, 『연합뉴스』, 2011.4.6. (84면)
- * 『키워드로 본 2005 취업 시장』, 『동아일보』, 2005.12.14. (96면)
- * 『신입 사원 채용 시 외모, 성차별 여전』, 『연합뉴스』, 2005.7.11. (96면)
- * 윤정혜, 『육아휴직제도 활용 현황과 시사점』, 『고용 동향 브리프 2015.7.』. (98면)
- * 『2015년 고용 노동 백서』, 노동부, 84~84쪽. (98면)
- * 『Gender wage gap』, OECD, 2014. (124면)
- * The Economist Home Page, 3 March 2016,
『<http://www.economist.com/blogs/graphicdetail/2016/03/daily-chart-0>』. (124면)
- * 『호주제 폐지: 호주제, 벽을 넘어 평등 세상으로』, 『참여정부 정책보고서』(2008) 참고. (132면)
- * 『부모가 결정한 내 성, 성평등한가』, 『여성신문』, 2015.3.5. (132면)
- * 『201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146면)
- * 최민정, 『경력단절 여성 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15.9』, 63쪽. (146면)
- * 『전업주부의 종말』, 『한겨레21』, 제948호 참고. (157면)
- * 김영옥, 『경력단절 여성 현황과 정책과제』, 『2015 KEIS 노동시장 분석』. (159면)

〈표1〉 『82년생 김지영』에 수록된 주석 목록
(괄호는 해당 주석이 수록된 페이지 면)

22)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민음사, 2016.

한국판 『여자의 일생』을 연상시키는 조남주의 소설은 ‘김지영’이라는 인물의 탄생으로부터 성장, 결혼과 출산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마주한 다양한 사회적 쟁점들을 소설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러한 쟁점들은 소설 속에 언급된, 구체적인 근거 자료들을 통해 제시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작가가 선택한 ‘김지영’이란 고유명사 역시 실제로 1982년에 태어난 여성들 가운데 가장 많이 붙여진 이름이라는 점에서, 철저하게 검증된 자료들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이다.²³⁾ 무엇보다 작품 내에 나타난 주석들은 소설 안에서 전개되는 사건들이 작가의 주관적인 의식의 흐름이 아닌, 객관적인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특징은 스스로를 ‘레고블록’이라고 언명한 김중혁의 소설 속에서도 나타난다. 김중혁은 기존에 있는 사물들을 ‘레고 블록’ 삼아 하나의 세계를 조립해나간다.²⁴⁾ 이때의 사물들은 모두 기성품으로, 작가의 배치와 조립에 따라 다른 사물들로 갱생한다. 어떤 사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물로서의 소설은 달라지며, 사물들은 기존의 기능과 의미를 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는다. 소설은 “새로운 것은 어디에도 없다. 누군가의 영향을 받은 누군가, 의 영향을 받은 또 누군가, 의 영향을 받은 누군가, 가 그 수많은 밑그림 위에 다 자신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라는 김중혁의 단편 『비닐광 시대』²⁵⁾ 속 문장처럼 구성되어 나간다. 실제로도 『비닐광 시대』의 DJ는 서로 다른 음악에서 흘러나오는 비트를 하나로 연결시킴으로써,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무용지물 박물관』²⁶⁾의 주

23) 김교연주, 『우리 모두의 김지영』, 『82년생 김지영』, 민음사, 2016, 179면.

24) “생각해보면, 나는 레고블록이다. 나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조각들로 이뤄진 덩어리일 뿐이다. … 조립되고, 해체되고, 또 다시 조립되면서 이 블록들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 김중혁, 『작가의 말』, 『뽕컨뉴스』, 문학과 지성사, 2006.

25) 김중혁, 『비닐광 시대』, 『악기들의 도서관』, 문학동네, 2008.

26) 김중혁, 『무용지물박물관』, 『뽕컨뉴스』, 문학과 지성사, 2006.

인공 역시 디자인을 위해 수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연결시킴으로써 새로운 디자인을 발명해낸다. 이는 발명은 베끼는 것이며, 이어 붙이는 것이기도 하다는 그의 소설 속 인물 '발명가 이눅씨'의 말과도 상통한다.²⁷⁾ 이러한 특징은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도출하는 인공지능의 알고리즘과 매우 흡사하다. “진정한 발명품은 배치”²⁸⁾라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말을 증명하듯이, 2000년대 젊은 작가들은 기존하는 것들의 ‘새로운 배치’를 통해 ‘새로운 소설’을 발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의 배치를 단순한 스타일상의 ‘배치’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배치’는 넓은 의미에서 새로운 형태의 구술문화적 특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수많은 각주들로 이어진 글쓰기는 과거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던 이야기들을 수집하던 작가들에게서 발견되는 특징과 묘하게 겹쳐지기 때문이다. ‘옛날옛날 어디에선가’ 들은 이야기들이 정확한 장소와 시간의 출처를 밝히게 된 셈이다. 물론 작가들이 접하는 자료들은 문자문화의 형태를 통해 존재한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는 수많은 정보들의 나열,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는 술한 이야기들은 윌터 J. 옹이 이야기한 “이차적인 구술성(secondary orality)”²⁹⁾의 차원에서 접근될 수 있다. 2000년대의 작가들은 미디어 매체를 통한 폭발적인 양의

27) “발명은 베끼는 건데요. 아니다. 전부 다 베끼는 거네. 베끼는 게 아니고 이어 붙이는 건가?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걸 만들면 발명인데, 벌써 다 있잖아요.” - 김중혁, 『발명가 이눅씨의 설계도』, 위의 책, 62면.

28) 이진경, 『노마디즘 2』, humanist, 2002, 434면.

29) 저자는 쓰거나 인쇄하는 것을 전연 알지 못하는 문화의 구술성에 입각한 성격을 ‘일차적인 구술성(primary orality)’으로, 전화·라디오·텔레비전·그 밖의 전자 장치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새로운 구술성을 ‘이차적인 구술성(secondary orality)’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오늘날 엄밀한 의미에서의 일차적인 구술문화는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문화도 쓰기에 익숙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 윌터 J. 옹, 이기우·임명진 옮김, 『구술문자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22면.

정보를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새로운 매체를 통해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이야기를 증식해 나가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저자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다변적이고 참여적인 형태의 서사가 완성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전혀 새로운 소설의 형식을 구성해 나가고 있다.

3. 미디어와 결합하는 작가들: 초단편 소설의 등장

해방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한국현대소설은 리얼리즘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놓여있었다. 프랑스의 역사를 알고 싶다면 발자크의 소설을 읽으라던 마르크스의 전언처럼, 소설가는 시대를 기록하는 '기록자'로서 오랜 시간 우리 사회 곳곳을 관찰해왔다. 90년대 이후 부각되기 시작한 내면으로의 침잠 역시,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인간 내면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작업의 연장선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실보다 더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소설들 속에서, 환상성을 강조하는 관념적인 소설들 혹은 기존의 소설적 형식을 파괴한 작품들은 순(純)문학의 장 내에서 그 가치를 폄하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이러한 시선들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일정한 정형성과 규칙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형식의 소설들이 출현하고 있는 까닭이다.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소설 구성의 3요소가 해체된 것은 물론이고, 소설이라는 장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형식적인 요소들이 소설의 견고한 성곽(城郭)에 균열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선, 2000년대 문학을 논하는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박민규의 작품을 살펴볼 수 있다. 주로 그의 초기 소설에 나타난 소설적 형식에 관해, 연구자들은 '인터넷 글쓰기'의 영향이 문학 내부

로 반영되었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변화하는 미디어 내의 글쓰기가 순문학의 장 안으로 도입되었다고 본 것이다. 물론 이러한 특징이 박민규만의, 박민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러한 형식이 문학적인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은 것은 박민규가 최초의 경우가 아닐까 한다. 이는 박민규를 21C 한국문학의 '총아'이자 '무규칙 이중작가'로 호명해왔다는 사실을 통해 뒷받침된다. 문단은 그의 첫 번째 소설집 『카스테라』³⁰⁾와 장편 『지구영웅전설』³¹⁾, 『핑퐁』³²⁾ 등에 그려진 우주적 상상력과 만화적 상상력에 주목했으며, 단편 『깊』³³⁾이나 『로드킬』³⁴⁾과 같은 SF 장르가 문학이라는 장 안에서 더 이상 비주류로 분류되지 않음을 인정하였다. 기존의 소설 장르 내에서는 볼 수 없던 소재와 장르의 도입, 이러한 특징은 변화하는 시대의 매체 변화가 소설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고민을 제기한다.

이처럼 변화하는 미디어의 특징을 소설 내에 적극적으로 도입한 작가로는 조하형을 살펴 볼 수 있다. 조하형의 소설 『키메라의 아침』³⁵⁾ 속에는 각 장마다 번호가 매겨져있고, 그것들은 각기 '4-3, 39-1' 형식의 링크를 통해 연속 병치된다. 이러한 링크는 텍스트 블록의 끝에 있거나 텍스트 블록 안의 단어나 문장 뒤에 위치하여, 지속적으로 다른 텍스트의 블록 이동을 요구한다. 이러한 설정은 텍스트 내의 서사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빚어낸다. 독자는 책의 페이지를 따라서 글을 읽어야 할지, 링크를 따라서 책을 읽어야 할지, 선택을 요구받기 때문이다. 결국 본문에서 어떤 링크를 먼저 선택하느

30) 박민규, 『카스테라』, 문학동네, 2005.

31) 박민규, 『지구영웅전설』, 문학동네, 2003.

32) 박민규, 『핑퐁』, 창비, 2006.

33) 박민규, 『깊』, 『제7회 황순원문학상』, 중앙일보, 2007.

34) 박민규, 『로드킬』, 『57회 현대문학상 수상소설집』, 현대문학, 2012.

35) 조하형, 『키메라의 아침』, 열림원, 2004.

나는 독자에게 달려 있으며 그 선택에 따라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분산되며 증식되어 나간다. 작가에 의해 창조되는, 하나의 결론을 향해 나아가는 소설은 해체되며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는 서사가 구축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도입부에서 언급했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기법과 일정 부분 겹쳐진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란 동일한 허구적 세계를 동시다발적으로 발현하며, 각각의 콘텐츠들이 하나의 큰 이야기를 구축하면서도 독립적으로 기능한다는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매체는 소설의 형식적인 면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새로운 매체의 탄생은 새로운 문화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³⁶⁾ 따라서 이전에 없던 매체의 등장은 문화의 형식과 내용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과거 소설의 신문연재가 소설의 내용적 측면에서 “관능성, 감상성, 야만성 등의 통속적 요소”를 부각시켰다는 사실과 연결된다.³⁷⁾ 실제로 신문연재 소설의 등장은 소설의 내용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장편소설의 부흥을 이끌어냈다. 뿐만 아니라 70-80년대에는 신문소설이 한국영화와의 교섭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신문이라는 매체가 소설의 다양한 변환을 가능하게 한 핵심적 역할을 해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도 한국 근대문학 연구에서 신문이라는 매체는 새로운 방식의 기록과 복제, 그리고 신속한 유통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왔다.³⁸⁾ 매체의 변화는 작가들의 글쓰기는 물론, 대중이 이야기를 소비하는 방식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36) 매체란 그 자체로 문화의 일부이며 당시대의 문화를 바꾸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김영민, 『한국의 근대 신문과 근대 소설』, 『현대소설연구』 제29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25면.

37) 김동운, 『1950년대 신문소설의 위상』, 『대중서사연구』 제17호, 대중서사학회, 2007, 37면.

38) 김영민, 앞의 논문, 10면.

것이다.

우선 변화된 매체를 활용한 작가들의 글쓰기로는 기성문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작품을 연재하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박범신은 장편 『출라체』를 2007년에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총 102회에 걸쳐 연재하였다. 이는 전문작가가 원고료를 받고 정기적으로 작품을 연재한 첫 번째 소설이라는 점에서 인터넷 소설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박범신은 네이버 문학동네 카페를 통해 『당신-꽃잎보다 붉던』을, 모바일 카카오페이지를 통해 『유리』를 연재한 바 있다. 황석영 역시 박범신의 『출라체』에 이어 두 번째 디지털 인터랙티브 소설로 『개밥바라기별』을 연재하였고, 심상대의 『나쁜 봄』, 백영옥의 『비정상 로맨스』도 네이버에 연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2000년대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은 새로운 매체를 통해 독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최근에 이르러 보다 적극적인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는데, 그 예로 '초단편' 소설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초단편 소설은 '엽편(葉片)소설' '장편(掌篇)소설', '미니 픽션' 등으로도 불리지만, 스마트폰 환경에 적합하다는 의미에서 '스마트 소설'이라고도 명명되고 있다.³⁹⁾ 이때 '스마트소설'의 의미는 『스마트소설, 박인성문학상 작품집』에 수록된 '스마트소설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달라진 문학적 환경을 맞이하여 생각할 수 있는 문학의 미래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문학만이 수행할 수 있는 그 고유한 권능을 수호하는 태도이다. (중략) 두 번째는 좀 더 공세적인 태도로 달라진 전자환경 시대에 어울리는 방향으로

39) "바쁜 현대생활 짧은 초단편 소설이 "대세"", 『경상일보』, 2017.02.20.,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9533>, 2017.10.13.

문학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문학이 지닌 권능의 일부를 양보하는 대신 새로운 문학적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스마트소설이란 바로 후자의 입장에서 문학의 미래를 더듬어 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밑줄: 인용자) 40)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스마트소설’이란 스마트폰과 소설의 결합을 시도하는 새로운 변환의 문학 장르로, 짧은 분량·빠른 소통·강렬한 시사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다. 새롭게 부각되는 미디어 매체와 전통 양식인 소설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소설을 파종”하고, 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차세대 문학의 지평”을 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다.⁴¹⁾ 이들 소설의 분량은 보통 200자 원고지 7매에서 30매 내외로, 일반적인 신인문학상 공모전에서 요구하는 단편 소설의 분량이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라는 점을 떠올릴 때 파격적인 분량 축소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초단편 소설집의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남숙의 21인, 『이해 없이 당분간』, 걷는사람, 2017.

김 솔, 『망상, 어』, 문학동네, 2017.

백가흠, 『그리스는 달랐다』, 난다, 2017.

성석제, 『사랑하는, 너무도 사랑하는』, 문학동네, 2017.

안영실, 『화요앵답』, 헤르츠나인, 2016.

이기호, 『웬만해선 아무렇지 않다』, 마음산책, 2016.

이용준, 『소년을 위한 사랑의 해석』, 문학과지성사, 2017.

임정혁, 『미래가 왔어』, 부크크, 2016.

40) 주수자 외, 『스마트소설 박인성 문학상: 2013 수상작품집』, 문학나무, 2012, 7면.

41) 위의 책, 5면.

장주원, 『ㅋㅋㅋ』, 문학세계사, 2014.
 정이현, 『말하자면 좋은 사람』, 마음산책, 2014.
 조경란, 『후후후의 숲』, 스윙밴드, 2016.
 최민석, 『미시시피 모기떼의 역습』, 보라빛소, 2016.

〈표2〉 최근 3-4년간 발표된 초단편 소설집의 목록 (가나다순)

위의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작품집이 최근 3-4년 간 폭발적으로 출간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문학동네, 민음사, 은행나무, 창비 등의 출판사와 함께 '초단편' 소설을 소개하는 신규 코너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⁴²⁾ 이는 앞으로도 '초단편' 소설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임을 예상하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문학 장(場) 내에서 '초단편' 소설이 갖는 의미를 탐색할 분명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초단편 소설의 등장이 단순히 분량상의 축소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의 단편 소설과 다른 초단편 소설만의 새로운 서사적 재현 양상이 출현할 것이고, 이에 관한 연구가 앞으로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전개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이러한 변화는 국내만이 아니라 국외 독서 시장의 변화를 통해서도 발견된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접근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셀폰 소설'로 표현되고 있다. 휴대폰을 통해 공

42) "최근 소설미디어를 통한 문화 콘텐츠 소비가 일상화되며 길이는 짧지만 장편 이상의 긴 여운을 남기는 초단편 소설 붐이 일고 있다. 초단편 소설은 책 5쪽 내외의 짧은 분량을 가졌으나 하나의 독립적인 이야기로 완결성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가운데 문학·출판 업계에서도 초단편·단편 작품을 통해 순문학의 매력을 알리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 서영준, "네이버, 모바일공서 작가 15인의 초단편 소설 소개", 『파이낸셜뉴스』, 2017.04.06.
<http://cn.moneta.co.kr/Service/stock/ShellView.asp?ArticleID=2017040610525500723&LinkID=532&NewsSetID=5617&Title=파이낸셜뉴스>, 2017.10.16.

유된 ‘셀폰 소설’은 인쇄매체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를 만큼, 일본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⁴³⁾ 물론 이러한 소설이 정통 소설에 비해 빈약한 문체를 구사함으로써, 일본 문학이 쇠퇴의 길을 걷게 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러나 2007년 일본의 베스트셀러 10위권 내에서 5편이 ‘셀폰’ 소설이었다는 점에서, 독자들이 욕망하는 이야기의 형식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다양한 ‘글쓰기 어플리케이션’이 제공되고, 스마트폰 시대로 접어들며 각광받게 될 직업으로 ‘작가’가 손꼽히고 있다는 사실 역시 변화하는 미디어와 소설의 상관관계를 고민하도록 이끈다.⁴⁴⁾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 국내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웹소설’에 주목할 수 있다. ‘웹소설’이란 웹에서 최초로 창작 및 유통되는 대중소설전반을 지칭하는데, 독자들이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고 다양한 방식으로 선호도를 표현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조건으로 삼는다.⁴⁵⁾ 국내의 경우 웹소설은 앞서 언급한 일본의 ‘셀폰 소설’과 마찬가지로 주로 로맨스, 판타지, 무협, SF, 팬픽 등의 내용을 다룬다는 점에서 문학적 작품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소설이란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 혹은 ‘흥미위주의 사소한 사건’이라고 규정된 시절이 있었다.⁴⁶⁾ 더구나 기존의 “출판시장이 해

43) Norimitsu Onishi, “Thumbs Race as Japan’s Best Sellers Go Cellular”, *The New York Times*, 2008. 1. 20.

<http://www.nytimes.com/2008/01/20/world/asia/20japan.html?em&ex=1200978000&en=9275f067f59eb69c&ei=5087%0A>, 2017.10.10.

44) 박원득, “스마트폰으로 돈 벌 수 있는 소자본 비즈니스, 전화 통해 글 전송 ‘셀폰 소설 작가’ 인기직종 급부상”, 『LA중앙일보』, 2010.1018.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101400, 2017.10.10.

45) 한혜원, 『한국 웹소설의 매체 변환과 서사 구조』, 『어문연구』 제91권, 어문연구학회, 2017, 265면.

46) 반고의 『한서예문지』에도 “小説家者流 蓋出於稗官 街談巷語 道聽塗說者之所造

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 '활자 콘텐츠' 등에 대한 열망을 웹소설을 통해 해소하는 독자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 서47), 웹소설의 가치를 간과만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한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다양한 글쓰기가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들은 단순히 짧은 소설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창작자의 위치로 유동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국 문학의 경우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신춘문예나 문예지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에 당선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협소한 등단 기회는 문단이라는 거대한 권력을 양산하고, 점차 독자와의 거리를 만들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블로그,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다양한 미디어 매체에서 소비되는 소설들은 독자와의 소통을 위한 측면에서 재조명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는 분명 문학의 흐름에 분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작품 창작만이 아니라, 작품을 평가하는 방식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웹진문지문학상>은 한국문학사상 최초로 웹진이라는 인터넷 공간을 통해 1년 동안 심사의 과정이 중계되고 결과가 발표되는 문학상이다. 매달 첫 주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내에 발표된 중단편소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 1편을 '이달의 소설'이라는 이름으로 게재하고, 그중에서 매년 2월 최종 수상작을 가려 뽑는 방식으로, 1년 내내 웹진을 통해 심사의 과정과 내용이 중계되는 최초의 문학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문학 작품은 이

也"이라는 문장이 소개되고 있다. 이는 "소설가란 무리들은 대개 폐관에서 나왔으니 거리의 이야기와 골목에 떠도는 이야기들은 길거리에서 듣고 꾸며낸 자들이 지어낸 것들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47) 강진규, 『웹소설, 제2의 웹툰 될까: 로맨스·판타지에 '풍덩' 웹소설에 빠지는 시대』, 『문화:기술-문화와 기술의 만남』 통권 53호,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7. 41면.

<http://www.kocca.kr/cop/bbs/view/B0000144/1833649.do?menuNo=200900#>, 2017.10.03.

제 소비하는 독자만이 아니라, 독자의 요구에 맞춰 새로운 방식의 글쓰기를 시도하는 작가, 그러한 작가를 평가하는 문학 내부의 장(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

4. 나가며: 2000년대 한국 문학과 작가의 ‘가치’

확장시절 암기했던 수많은 공식과 이론들은 시간이 갈수록 기억 속에서 흐릿해진다. 그러나 한참 더 어린 시절에 들었던 동화 속 이야기들은 기억 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건 다름 아닌 이야기, 즉 ‘서사의 힘’ 때문이다. 서사가 지닌 이러한 힘은 오늘날 ‘스토리텔링(story telling)’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어 사회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⁴⁸⁾ 그런데 이때 ‘스토리텔링’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스토리(Story)’ 차원에 국한된 논의가 아니라,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야기한 ‘텔링(Telling)’ 방식의 변화가 아닐까 한다. 기술의 발달은 매체의 변화를 이끌어 냈으며, 미디어의 변화는 이야기를 구현하고 소비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2000년대 작가들은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배치해 나간다. 이때의 정보는 모두에게 공유된다는 점에서 집단적 성격을 지닌다. 이전의 소설이 ‘집단’의 경험을 통해 ‘개인’의 기억을 생산해 냈다면, 2000년대 발표된 소설들은 집단의 경험이 소멸한 시대 속에서 기억을 공유한다는 아이러니함을 특징으로 갖는다. 이것이 바로 거대 서사를 구축할 ‘혁명적인 경험’이 부재하는 2000년대 작가

48) 국회도서관에서 ‘스토리텔링’이란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전체 7,043편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2,000여권에 에 달하는 도서자료는 대부분 2006년도 이후부터 출간되었고, 학술논문 대부분도 2000년대 이후 발표되기 시작했음이 확인되었다. - 국회도서관(<http://dl.nanet.go.kr>), 2016년도 10월 기준.

들의 글쓰기가 갖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경험이 부재하는 그들은 보다 철저한 자료 수집을 통해, 혹은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는 수많은 사건들을 자신의 작품 속에 배치해 나가고 있다. “저는 제가 읽은 것들을 다시 쓴 것뿐입니다, 이런 것을 창작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⁴⁹⁾다는 정지돈 소설 속 인물의 말처럼, 창작이 아닌 배치하는 작가로의 이행이 이루어진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특징을 21세기 한국문학이 갖는 특징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고, 이를 2000년대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갖는 내용과 형식적 특징을 통해 증명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그들의 글쓰기 방식이 최근 각광받고 있는 ‘인공지능의 창작 방식’과 유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어진 데이터를 토대로 새로운 발견을 이루어내는 인공지능의 글쓰기와 기존의 지식과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을 완성해내는 작가들의 글쓰기 스타일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판단된 까닭이다. 이러한 공통점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갖는 하나의 특징을 가시화한다. 그러나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인공지능이 존재하는 것을 바탕으로 글쓰기를 시도한다면,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한다. 그런 의미에서 ‘상상력’이야말로 2000년대 문학이 갖는, 인공지능의 한계를 넘어선 인간 고유의 영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이 작품 내에서 구체적인 ‘주식’을 통해 서술되고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상상력에 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작가들이 작품 안에서 활용된 자료들의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는 일은 일반화되지 않았다. 그 결과 권지예는 소설집 『꽃게무덤』 속에 수록된 단편 「봉인」이 박경철의 에세이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의 한 대목이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황석영은 『강남몽』이 월간 『신동아』에 수록된 “대한민국 주

49) 정지돈, 『미래의 책』, 앞의 책, 111면.

먹을 말하다”의 기사 일부를 베꼈다는 의혹을 제기 받았다.⁵⁰⁾ 해당 사건들은 두 작가가 명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은 점을 사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또한 신경숙은 단편 『딸기밭』을 통해 재미 유학생 안승준의 유고집 『살아 있는 것이오』의 상당 부분을 베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유족에게 누가 될까 봐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명함으로써 논란을 더욱 가중시킨 바 있다.⁵¹⁾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과 대비했을 때, 최근 젊은 작가들 작품에서 구체적으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것은 단순히 지식과 정보의 나열이라는 측면을 넘어, 작가로서의 윤리성에 대한 자기반성의 결과물이 아닐까 한다. 이는 소설을 쓸 때 가장 중요한 물음은 ‘정직한가와 즐거운가인가’라는 정지돈 작가의 말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즉,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통해 이루어지는 젊은 작가들의 글쓰기는 단순히 지식을 조합하는 유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윤리성을 구축하기 위한 나름의 몸짓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기계처럼 차가워 보이는 배치의 이면에는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윤리에 방점을 찍고 있는, 우리 시대 문학의 윤리성에 관한 고민이 담겨있다고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보여준 상상력을 ‘윤리적 상상력’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변모하는 미디어 환경 안에서 이전과 다른 글쓰기를 시도하는 작가들과 그들로 인해 형성된 문학들에서 비롯된 새로운 발상들은 ‘소통’이라는 문학의 본질적 문제를 마주하게 한다. 소설은 미디어를 통해 독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기

50) 정희완, “역대 ‘표절’ 의혹…김지하·황석영·천운영·권지예”, 『경향신문』, 2015.06.20.,

<http://h2.khan.co.kr/201506201202461>, 2017.10.05.

51) 박주연, “기성작가 표절시비 왜 반복되나”, 『위클리경향』 795호, 2008.10.14.,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6&artid=18489&pt=nv>, 2017.10.05.

때문이다. 물론 본 논문에서 도출된 윤리와 소통의 문제는 기존의 문학 내에서 꾸준히 반복되어 온 주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차별점이 존재한다. 80년대가 거대 담론의 틀 속에서 모두가 함께 '하나의 소통'을 추구함으로써 전체의 윤리를 강요하던 시대였다면, 90년대는 '자신과의 소통'조차 이루어낼 수 없기에 공통의 윤리를 거부하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문학은 이러한 이전 시대의 문학과 변별된다. 그들은 디지털 문명 속에서 보다 강화된 개인주의를 추구하지만, 그 속에서 나름대로 소통의 망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혹자는 밀폐된 방 안에서 혼자 컴퓨터를 하는 사람의 뒷모습을 통해 타인과의 교류가 단절된 현대 사회의 위기를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컴퓨터 속에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이루어나간다. 비록 서로의 얼굴이나 이름을 모르더라도, 그들은 그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범주 안에서 누구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통한 글쓰기 역시 인간의 고유한 영역의 침해, 혹은 대립 항으로 상정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한다. 오히려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글쓰기의 가능성을 탐색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도입부에서 언급했던 「컴퓨터가 소설을 쓴 날」이 인공지능이 아닌,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간의 작품으로 해석할 여지가 여기에 있다. 회화의 밑작업을 대신해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 그림을 완성시키는 시간이 절약되고, 다양한 악기의 '음(音)'을 학습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 한 대만으로도 방대한 교향곡의 작곡이 가능해지듯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한 소설 창작 역시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과 예술은 대립항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둘의 결합을 통해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주어진 재료를 다른 것과 섞고 변형함으로써, 소재로부터 물질성을 해방하고 새로운 형태를 부여하는 '야금술'을 떠올리게 한다. 엘리야데

는 “야금술사란 대지의 비밀,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고 그 비밀을 소통시키는 자”라고 말하였다.⁵²⁾ 이질적인 것들의 결합을 통해, 그것들이 본래 지닌 의미로부터 해방함은 물론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야금술, 그렇다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기로에 선 2000년대 한국 작가들을 야금술사로 칭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작가의 개념이란, 인간과 기계의 대립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통한 글쓰기를 시도하는 작가’라는 새로운 개념 규정에 관한 고민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작가란 무엇인가’라는 고전적 가치에 관해 새로운 질문, 그리고 나아가 ‘소설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새로운 답을 제시할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52) 들뢰즈/가타리는 야금술이란 변형의 기술이고, 물질성을 통해 형식화된 재료의 문턱을 넘는 기술이며, 근본적으로 물질성의 흐름 자체에 대한 사유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진경은 이러한 사유가 소수적 과학, 유목적 과학의 특징을 지닌다고 분석한다. 이런 의미에서 “야금술은 질료-흐름의 의식 내지 사유고, 금속은 이 의식의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진경, 앞의 책, 447면.

■ 참고문헌 ■

1. 논문

- 김동윤, 「1950년대 신문소설의 위상」, 『대중서사연구』 제17호, 대중서사학회, 2007, 7-41면.
- 김영민, 「한국의 근대 신문과 근대 소설」, 『현대소설연구』 제29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9-29면.
- 김소연·박준·백지연, 「이 계절에 주목할 신간들」, 『창작과비평』 제44권 제3호, 2016, 410-445면.
- 우한용, 「소설의 경계와 연구의 한계」, 『현대소설연구』 제34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3-4면.
- 조연정, 「‘충분히 근본적인’ 교란을 위하여 - 백가흠과 이기호의 소설」, 『문학동네』, 2007년 봄호, 1-18면.
- 한혜원, 「한국 웹소설의 매체 변환과 서사 구조」, 『어문연구』 제91권, 어문연구학회, 2017, 263-291면.

2. 단행본

- 김 솔, 『암스테르담 가라지세일 두 번째』, 문학과지성사, 2014.
- 김중희, 『(황순원 ‘소나기 마을’의)OSMU & 스토리텔링』, 랜덤하우스코리아, 2006.
- 김중혁, 『펍킨뉴스』, 문학과 지성사, 2006.
- _____, 『약기들의 도서관』, 문학동네, 2008.
- 백가흠, 『귀뚜라미가 온다』, 문학동네, 2005.
- _____, 『조대리의 트렁크』, 창비, 2007.
- 이진경, 『노마디즘 2』, humanist, 2002.
- 정지돈, 『내가 싸우듯이』, 문학과지성사, 2016.
-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민음사, 2016.
- 조하형, 『키메라의 아침』, 열림원, 2004.
- 주수자 외, 『박인성 문학상: 2013 수상작품집』, 문학나무, 2012.
- 최예정·김성룡, 『스토리텔링과 내러티브』, 글누림, 2005,

Jenkin, Henry, 김정희원·김동신 옮김, 『컨버전스 컬처』, 비즈앤비즈, 2008.
 Ong, Walter J., 이기우·임명진 옮김, 『구술문자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3. 기사

- 강경수, 「글로벌 기업은 왜 인공지능에 열광하나 인공지능 시장을 잡는 자, 미래 세상을 지배한다」, 『문화:기술-문화와 기술의 만남』 통권 53호,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7.
- 강동식, 「Intro 창작하는 인공지능, AI시대의 창작」, 『문화:기술-문화와 기술의 만남』 통권 51호,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4.
- 강진규,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 권리는 어디까지?」, 『문화:기술-문화와 기술의 만남』 통권 51호,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4.
- _____, 「웹소설, 제2의 웹툰 될까: 로맨스·판타지에 ‘풍덩’ 웹소설에 빠지는 시대」, 『문화:기술-문화와 기술의 만남』 통권 53호,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07.
- 길윤희, “인공지능 소설 절반의 성공”, 『한겨레』, 2016.03.22.
- 박원득, “스마트폰으로 돈 벌 수 있는 소자본 비즈니스, 전화 통화 글 전송 ‘셀폰 소설 작가’ 인기작중 급부상”, 『LA중앙일보』, 2010.10.18.
- 박주연, “기성작가 표절시비 왜 반복되나”, 『위클리경향』 795호, 2008.10.14.
- 서영준, “네이버, 모바일흡서 작가 15인의 초단편 소설 소개”, 『파이낸셜뉴스』, 2017.04.06.
- 원태영, “스토리헬퍼 후속 스토리타블로 선배”, 『시사저널』, 2016.11.,
- 음성원, “소설 쓰는 알파고는 없었다”, 『한겨레』, 2016.06.26.
- 이미희, “작가 인터뷰: 정지돈 한마디로 괴물같은 신인”, 『BOOK DB』, 2015.05.26.,
- 정서린, “디스토피아, 현실과 멀다고 느껴지나요”, 『서울신문』, 19면, 2017.08.05.
- 정희완, “역대 ‘표절’ 의혹…김지하·황석영·천운영·권지예”, 『경향신문』, 2015.06.20.
- “바쁜 현대생활 짧은 초단편 소설이 ‘대세’”, 『경상일보』, 2017.02.20.
- Onishi, Norimitsu, “Thumbs Race as Japan’s Best Sellers Go Cellular”, *The*

New York Times, 2008.01.20.

4. 인터넷 자료

「스토리헬퍼」 홈페이지, <http://www.storyhelper.co.kr/>.



<Abstract>

Korean literature in the Era of AI(artificial intelligence), changing the role of writers from creators to combiners

Kim, So-Ryun

AI(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s are producing diverse art creating works in our current society. The rise of AI operates not only the remarkable changes of media but also the ways of delivering and consuming stories. This paper thus focuses on analyzing meanings of combining a rising media with a traditional literary genre, i.e. a novel. Published novels in the 2000's are examined based on the aspects of their contents and forms to discover the significance of this analysis. As a result, the ways of writings in the 2000's seems to be considerably similar with AI algorism. As AI, accomplishing new development based on accumulated data, the writers in the 2000's have been collecting existing innumerable online information. Indeed, the writers are building their stories by absorbing resources explosively and by communicating effectively with their readers online. In this procedure, the definition of writers becomes vague, and multilateral and participative forms of story making become possible. This phenomenon results in a new genre of a 'short short story', as hyperfiction, attempting to combine mobile techniques with writing novels. As indicating the fact that maintaining the modernity in the post-modern era is to suppress the novel, this paper has significance of raising a question of "what is the novel" in this era of so called AI.

Key words: AI(Artificial Intelligence), Trans-media Storytelling, Korean
Novels of 2000's, A combinatorial novel, short short story

투 고 일 : 2017년 11월 13일 심 사 일 : 2017년 11월 15일-12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7년 12월 15일 수정마감일 : 2017년 12월 20일